

TV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4 columns: KBS1, KBS2, MBC, KBC/SBS. Lists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드라마 '미워도 다시한번' 최명길

“여배우로 살아가는 데 포인트 찍어준 작품”

최명길(47)은 당당했다. 언제나 그랬듯. 40대 후반이지만 그는 아직도 드라마에서 누구의 엄마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인공이다. 23일 종영하는 KBS 2TV '미워도 다시한번'은 그런 최명길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품이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이 드라마를 하면서 선배, 동료 연기자들로부터 격려와 축하 전화를 많이 받은 것이에요. 전화하는 분들이 무척 기뻐했어요. 이런 드라마가 없었으니까요. '미워도 다시한번'을 계기로 다양한 소재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드라마가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꽃보다 남자'도 있어야겠지만 이런 드라마도 있어야죠.” 최명길이 연기한 한명민은 비운의

여자다. 젊은 시절 집안에서 반대하는 가난한 화가와 사랑의 도파를 했지만 교통사고로 연인을 잃고 자신은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이후 아버지가 정해진 날짜와 정략결혼을 하지만 그 남자는 다른 여자와 30년간 관계를 이어오며 딸까지 낳았다.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된 명민은 분노에 치를 떤데,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옛 사랑이 다시 자신의 앞에 나타나 혼란을 더한다. “한명민이 멋있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파워풀하다는 거죠. 제가 봐도 멋있어요. 그래서인지 요즘 미용실에서 '한명민 스타일'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는 이 드라마의 성공을 자신했다고 말했다. “이번 드라마는 제작진이

제가 가는 기대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도 언젠가는 이런 드라마를 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적기에 만난 것 같아요. 최명길이라는 배우가 이 나이에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기쁘죠.” 그는 “20대에 내 이름을 한번 더 각인시킨 것보다 지금 내 나이에 각인시킨 것이 몇배로 더 큰 보람이었다. 그런 점에서 작가님과 감독님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여배우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 포인트를 찍어준 작품이고 내가 힘이 얻을 수 있게 해줬다. 앞으로도 내 나이에 맞게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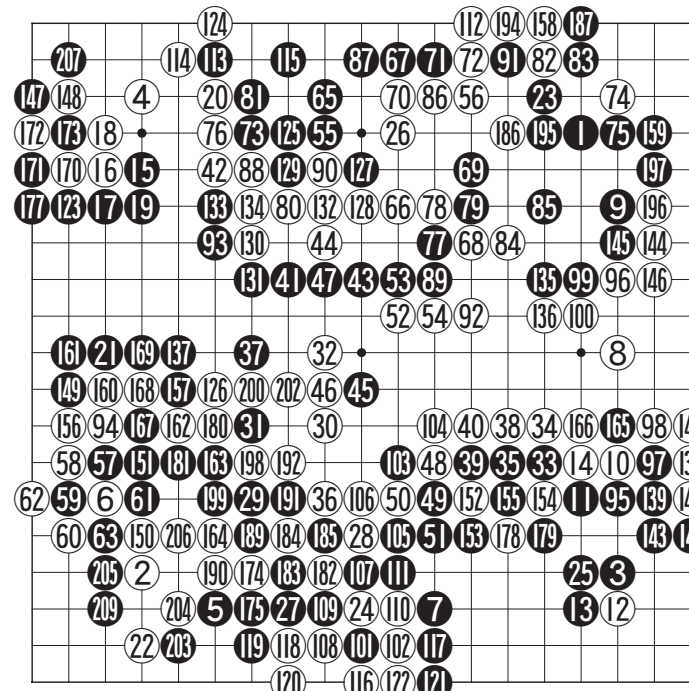
연출가

제4기 원익배 10단전

박정환, 첫 타이틀 획득

결승 2국 총보(1~209)

白 백용석 6단 黑 박정환 3단



결국 이 바둑은 209 수까지 가는 접전 끝에 백용석 6단이 돌을 던져 박정환 3단이 생애 최초로 17세의 나이에 본격 타이틀전에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 영광을 차지했다. (박정환은 2008년에도 영인기 마스터스 기전에서 역시 광주중산인 김지석을 2대 1로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한 바 있지만 이 기전은 40세 이하만 참가하는 특별기전이라 공식기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기전에 두번째 결승전에 오른 백용석으로서의 우승에 대한 열망이 훨씬 더 강했을 것이지만 어깨에 힘이 들어간 탓인지 또는 고항 후배와의 대결이라는 부담때문인지 예상외로 영봉패 당하고 말아 아쉬움이 남는다. 이 바둑은 1국 때의 치열했던 전투와는 달리 두 기사가 이 판의 중요성을 의식한 탓인지 수비로 일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패착을 정확하게 짚어서 애기하기 힘들 정도다. 1국 때의 사나웠던 육박전을 생각하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패기를 감추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로 승리한 박정환은 바둑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렸고 백용석은 또다시 권토중래를 노려야 한다. 흑 209 수 끝. 흑 불계승. <규정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Table with 3 columns: EBS, EBS플러스1, EBS플러스2. Lists various EBS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Language learning section with four columns: '굿모닝 잉글리쉬 <1290>', '오하오우 니혼고 <1290>', '니하오 쑹구워 <367>', '한자 이야기 <1007>'. Each column contains a lesson with Korean, English, and Chinese text.